

발전기금 문의 | 051-510-1857
자료기증 문의 | 051-510-7600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원 도서관
Vol. 53 2022. 12.

도서관의 미래, 당신과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946년 임시건물에서 '효원도서관'으로 시작하여
70여 년간 부산대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서비스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산대 도서관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후원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밝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1975년 참고도서관 열람실

2000년대 제2도서관 열람실
사진 1, 2 부산대학교 기록관 제공

2022년 새벽별도서관 리넵키먼스

2022년 새벽별도서관 새벽 별당

CONTENTS

- 04 특집기사
새로운 지식이 깨어나는 곳 「새벽 별당」
제6회 부산대학교 교수저작물전시회
- 10 도서관 200%활용하기
캠퍼스별 도서관 북큐레이션 소개
- 14 책 읽는 대학
부산대 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 최우수상 수상작
- 18 여기 issue 우주! 무한한 한계를 넘어
- 20 #발견 #이곳 부산 지역출판사 둘러보기
- 22 시선 집중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용재 발행일 2022. 12.
편집 김유경, 박경석, 박선화, 서소영, 손다영, 신난, 조효정, 허은정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2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새벽별당

새로운 지식이 깨어나는 곳!

22년 4월 새벽별도서관
1층 라닝커먼스와
In(人)novation Park가
새단장한데 이어
2층도 24시간 열람 공간이
새롭게 개관하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24시간
열람실의 재탄생이다

새벽 별당

“새벽 별당”이라는 이름은, 새벽에도 불을 밝히는 24시간 열람실이 출입구가 별도로 주어진 별채와 같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간 열람 공간이니만큼, 학습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가구를 차분한 우드톤의 다크 브라운 컬러와 피로한 눈을 휴식할 수 있는 딥 그린 컬러로 구성하였다.

외부 휴게공간

별다리를 지나 새벽 별당에 들어서면 외부 휴게 공간에서 전화를 받거나, 간단히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구성 되어 있다. 키오스크와 벽면을 활용한 게시판을 통해서 교내 이벤트와 행사, 공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열람 공간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다. 그래서 새벽별도서관 출입과 별도로 열람실 입·퇴실 시 게이트 인증을 하도록 이중으로 게이트를 설치 하였다.

별다리

원래 이곳은 이용자 출입이 불가능했던 보존서고 공간이었다. 새벽 별당을 위해 사회대 예원정과 연결되는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이용자들이 새벽별도서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기존 열람 공간과 통하는 문은 잠기게 되고, 사회대 예원정과 연결된 브릿지를 통해 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야외시설

밤늦게 이동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대 예원정의 등나무들도 가지치기를 하고, 잔디밭을 둘러싸고 있던 나무들은 법학대학으로 이전 해 시야를 확보했다. 조명도 새롭게 설치가 되어 야경도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나무 아래 평상을 설치하여 선선한 날씨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하였다.



집중열람공간

열람실에 들어가면 시원한 복도를 통해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다. 벽면 쪽에 부스형 디자인의 열람 공간을 배치하여 안락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모듈형 독립 열람 공간도 적절하게 배치하여 천연일률적인 칸막이 설치를 지양하고 개방감이 있으면서도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 학생들과 서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높낮이 조절 테이블도 비치하였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열람실보다 1인당 좌석 공간을 1.5배 정도 확대하여 쾌적한 열람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노트북열람공간

집중열람공간을 포함하여 전 좌석에 디지털 기기의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콘센트를 설치하였다. 노트북 사용에 대비하여 책상을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창이 많고 바깥 언덕을 조망할 수 있어 창가형 책상을 다수 배치하였다.

내부 휴게공간

집중열람공간과 노트북열람공간의 소음을 서로 차단할 수 있는 완충지대역활을 위해 열람실 가운데 공간을 구성하였다. 학업과 연구에 열중한 학생들이 밤에도 쉴 수 있도록 개인 열선이 깔린 마루형 공간, 그룹형 소파, 1인 암체어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활용하여 공간을 꾸몄다. 벽면을 루버로 대체하여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도록 조성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도 대비하고 공간의 개방감도 부여하였다.



제6회 부산대학교 교수저작물 전시회 책으로 쌓아올린 학문의 탑



제6회 부산대학교 교수저작물 전시회
〈책으로 쌓아올린 학문의 탑〉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9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부산대학교 부산, 양산, 밀양 캠퍼스의
구성원 모두가 관람할 수 있도록 중앙
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 나노생명
과학도서관 세 도서관을 순회 하며 전시
했다. 전시된 실물 도서만 1,000여 권에
달했다고 하는데, 부산대학교 교수저작물
전시회는 어떤 전시일까?

부산대학교 교수저작물 전시회의 시작

부산대학교는 2004년 주요 국책사업을 대거 유치하며 연구 중심대학으로
비상했다. 이에 힘입어 도서관에서는 부산대학교의 연구 역량과 실적을 홍보
하기 위해 제2도서관(현 새벽별도서관)에서 제1회 교수저작물 전시회를
개최했다. 제1회 교수저작물 전시회는 2000년 이후 발간된 부산대학교
교수의 개인 저작물 630여권과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의 연구실적
우수논문 230여 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수저작물 전시회는 눈여겨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도 있는 동료, 선후배 및 스승의 저작물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여섯 번째 교수저작물 전시회를 진행하기까지

성공적인 첫번째 전시에 힘입어 2008년엔 지난 5년간 부산대학교 교수가
발간한 단행본 600여 점을 대상으로 2회 전시 『연구와 교육의 결실 도서관
에서 만나다』를 진행하였다. 이후 4-5년을 주기로 3회, 4회 교수저작물
전시회를 진행하며 현재는 명실상부한 부산대학교 도서관 대표 기획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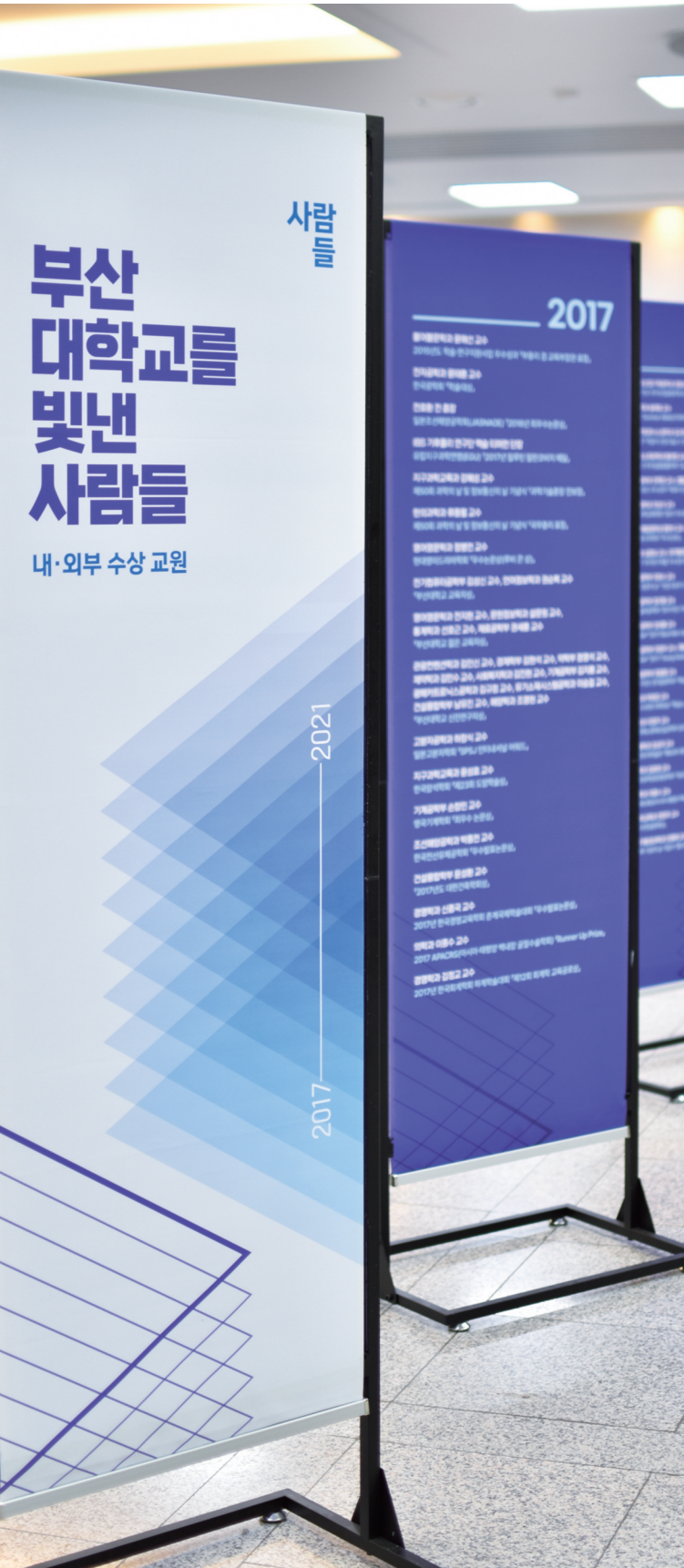
제6회 교수저작물 전시회 〈책으로 쌓아올린 학문의 탑〉

이번 교수저작물 전시회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부산대학교
소속 교원이 저작에 참여한 단행본 1,311권이 전시됐다. 5년간 저작물
집필에 참여한 교원의 수가 571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저작물 집필에 대한
교원들의 빛나는 열정을 볼 수 있었다. 전시는 1부 프롤로그, 2부 책들,
3부 사람들로 진행되었다.



부산대학교 교수저작물 전시회 연혁

- 2004 제1회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 및 저작물 전시회〉
- 2008 제2회 〈연구와 교육의 결실 도서관에서 만나다〉
- 2010 제3회 〈부산대학교를 빛낸 열정과 노력〉
- 2013 제4회 〈학문의 실타래를 풀어놓다〉
- 2017 제5회 〈PNU교수, 학문의 나라를 펼치다〉
- 2022 제6회 〈책으로 쌓아올린 학문의 탑〉



1부 프롤로그

프롤로그에서는 이번 전시 대상을 분석한 그래프 자료가 전시됐다. 연간 출간 권수 및 주제 분야, 우수도서 선정 현황 등을 그래프로 구현하여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1부에서는 가장 많은 책을 집필한 교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교육과 최진혁 교수님, 박재국 교수님이 각각 26권의 책을 집필하여 공동 1위를 기록했고,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철옥 교수님이 22권의 책을 집필하여 2위를 기록했다. 전업 작가도 이토록 많은 집필에 참여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교육과 연구 활동만으로도 바쁜 나날을 보낼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책을 집필 했다니 그 열정에 놀라게 된다.

2부 책들

이번 전시의 메인 코너로 단과대학별 저작물 현황과 우수도서 두 가지 내용을 전시한다. 단과대학별 저작물 현황은 전시 자료를 24개 단과대학으로 분류하여 나열한다. 전시 배너와 더불어 실물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수가 무려 1,000여 권으로 분야별 저작물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전시에는 국내서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으로 출간된 원서들도 심심치 않게 보여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부산대학교의 위상을 살릴수 있었다. 특히 전시 도서 중 사회학과 김영 교수님이 2017년 출판한 『主婦パートタイマーの處遇格差はなぜ再生産されるのか(주부 파트타이머의 처우 격차는 왜 재생산되는가)』는 일본 사회정책학회에서 외국인 최초로 학술상을 받는 영광을 얻었다. 이 책은 2020년 한국에서 『주부협정과 파트타임 노동』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고 이듬해인 2021년 세종도서로도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다.

전시된 책들은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강의에 사용되는 교과서 종류부터 시작해, 연구논저, 에세이, 어린이를 위한 교과서까지 종류와 대상이 다양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고 전시되었다.

집필에 참여한 교원의 저자 역할 역시 다양했다. 1인 저자로 책을 오롯이 혼자 집필한 경우도 있었고, 많게는 십여 명이 함께 책을 집필한 경우, 원서를 번역한 경우 등 다양한 역할로 집필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시를 관람하며 이렇게나 많은 책과 저자를 어떻게 한자리에 모은 것인지 궁금해졌다.

바닥의 화살표를 따라 전시장 안쪽으로 향하니 우수도서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우수도서 코너는 국내 선정 우수도서 목록 중 권위를 가지는 한국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대한민국학술원의 우수학술도서, 한국 과학창의재단의 우수과학도서를 소개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우리 대학 교원의 저작물 중 우수도서 목록으로 선정된 자료는 무려 83권에 달했다.

우수도서 코너에는 흥미를 끄는 책들이 많이 보였다. 세종도서의 경우 학술 부문과 교양부문을 함께 선정하고 있어, 관련 학문을 전공하지 않아도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었다.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함께 전시되어 있어 책의 의의와 선정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다. 코너 내에는 책 모양 조형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빛이 나는 우수도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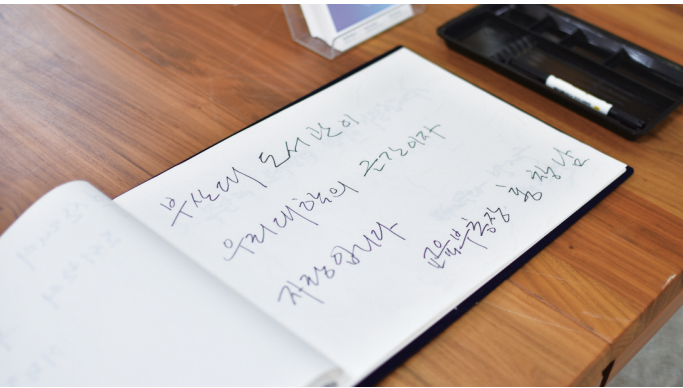
3부 사람들

3부에서는 부산대학교 교원의 대내외 수상 내역을 기록했다. 부산대학교 교육자상부터 해외 학술상까지 5년간의 수상 내역을 총망라하였다. 열정적인 연구 활동이 책 집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일까? 앞선 전시 내용에서 책의 저자로 났던 교원이 수상자로도 계신 것이 보여 은근한 친밀감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연간 끊이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상을 수상한 교원들을 보며, 부산대학교의 저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9월 8일 오전에 진행되었다. 개막식에는 차정인 부산 대학교 총장, 홍창남 교육부총장 등 부산대학교 인사 30명 내외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될 저작물들을 살펴보고 집필 당시를 회상하기도 하였고, 동료 및 스승의 저작물을 보며 칭찬과 격려를 해주기도 하였다.

“부산대 도서관이 우리 대학의 근간이자 자랑입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방명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홍창남 교육부총장이 작성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앞으로도 교수저작물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교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생들의 학습 탐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부산대학교의 발전을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다.



책으로 말을 걸다

캠퍼스별 도서관 북큐레이션 소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자료를 추천하는 북큐레이션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각 캠퍼스에 전시된 다양한 주제별 도서를 만나보자!



새벽별도서관

장소 | 새벽별도서관 1층 북큐레이션공간
일시 | 2022. 9. 1.(목) ~ 2022. 9.30.(금)

영화, 드라마 원작도서

요즘은 도서를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다. 영화나 드라마의 흥행과 인기 정도에 따라 원작도서들도 재조명되곤 한다. 새벽별 도서관 로비에는 영화나 드라마의 원작도서 중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제목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원작도서의 신선함까지 새벽별 도서관에서 느껴볼 수 있다.



중앙도서관 - 1

장소 |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실
일시 | 2022. 9. 1.(목) ~ 2022.10.31.(월)

비거니즘 한 걸음

가치를 가성비보다 더 중요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떠오르는 트렌드 “비건” 헬시프레저(즐겁게 하는 건강관리) 바람으로 비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비거니즘 추천도서부터 부산비건 지도, 이벤트까지 비거니즘에 관한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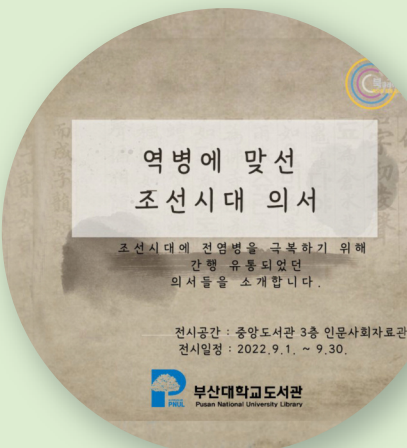


의생명과학도서관

장소 | 의생명과학도서관 1층 북카페
일시 | 2022. 9. 1.(목) ~ 2022. 11. 30.(수)

우리들의 블루스

파란색(Blue) 표지로 된 다양한 주제의 책을 전시했다. 그 외에도 시, SF, 교양만화를 주제로 160여 권의 책을 아늑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 선선히지는 바람과 높고 파란 하늘 아래 책과 함께 의생명과학도서관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중앙도서관 - 2

장소 | 중앙도서관 3층 고문헌자료실
일시 | 2022. 9. 1.(목) ~ 2022. 9. 30.(금)

역병에 맞선 조선시대 의서 - 조선시대에 간행된 의서 중 전염병 관련 문헌

2020년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는 아직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역병의 발생은 과거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역병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의서들이 간행되어 유통되었는지 우리 도서관 고문헌 자료실 소장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장소 | 나노생명과학도서관 3층 자료실
일시 | 2022. 9. 1.(목) ~ 2022. 10. 31.(월)

시를 잊은 그대에게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다가오는 계절을 기다리면서 몽글몽글한 감성을 깨워주는 시집이 전시되어 있다. 나노생명과학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내 취향의 시를 찾아보는 시간을 즐겨보자.

**부산대 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란?

대학 소속 연구자인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말한다. 연구지원서비스는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성과 활성화를 통해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평가 가치를 높이며,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꼭 적극적인 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연구지원 서비스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 과정을 착수-진행-마무리의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맞춤형 연구지원서비스와, 연구자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연구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투고 규정 등을 제공하는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도서관은 연구 과정의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연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지원 서비스를 계획하였으며 시범 서비스 단계를 거쳐 올해 4월 초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 연구지원 신청 |

```

graph TD
    A[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 B[원고 심사]
    B --> C[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승인]
    B --> D[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반려]
    C --> E[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수정]
    C --> F[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게재]
    D --> G[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재투고]
    D --> H[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철회]
    E --> B
    F --> I[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보관]
    F --> J[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배포]
    H --> G
  
```

Research Support Service

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승인
원고 심사
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반려
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수정
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게재
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재투고
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철회
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보관
연구지 및 초록 등 저널 투고 배포

Q. 작성한 논문을 투고하기에 적절한 학술지를 추천받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영향력 있는 학술지라도!

투고할 논문의 정보(논문 제목, 영문 초록,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Clarivate Analytics Manuscript Matcher, Elsevier Journal Finder, Springer Journal Suggester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투고하기에 적절한 제의 학술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요약서샘플](#) [상세내용](#) [신청하기](#)

Q. 투고하려는 학술지가 부실(학발적) 학술지일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투고할 논문 관련 학술지가 부실(학발적) 학술지인지 공공학위기관? 도서관에서 SAFE, Beall's List 등을 통해 부실(학발적) 학술지의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연구지리스트](#) [신청하기](#)

Q.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부합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에 벗어나는지 공공학위기관? 도서관에서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연구지리스트](#) [신청하기](#)

Q. 참고문헌 작성,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참고문헌 서식(표기법)이 어려우신가요? 참고문헌 작성을 위한 전문 방법이 필요하신가요? 투고해야 할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참고문헌 스타일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도서관에서 자체에 안내해드립니다.

[연구지리스트](#) [신청하기](#)

Q. 연구 활동에 꼭 필요한 서비스인데, 도서관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래에 없는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번역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미리 맞고고 서비스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연구지리스트](#) [신청하기](#)

도서관 홈페이지 연구지원 서비스 신청 메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1. 투고 학술지 추천 서비스

연구자가 투고하려는 논문 정보(영문 제목, 초록, 키워드 등)를 알려주면 이를 바탕으로 학술지 추천 도구를 활용하여 관련성이 높은 학술지를 추천하거나, 관련 정보(저널명, ISSN, 영향력 지수(JIF/CiteScore, Percentile 등), 게재 소요 기간, APC, 부실학술지 의심여부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본정보						
Journal Title	ISSN	eISSN	Publisher	저널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원문)	PNU Scholar
Journal of Hepatology	0168-8278	-	ELSEVIER	...	...	...
Hepatology	0270-9139	1527-3350	WILEY	...	...	...
JOURNAL OF CLINICAL	0021-9738	1558-8238	AMER SOC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16/j.jclinep.2020.108501	...	...

Publication Information					
부설학술지 의심여부	Open Access 여부	APC	Acceptance Rate	Time to 1st Decision	Time to Publication
특이사항 있음	Hybrid	\$4,500	19%	2 weeks	18 weeks
특이사항 없음	Hybrid	-	-	-	-
특이사항 없음	Hybrid	-	-	-	-

Web of Science / JCR					
SCIE 등재 여부	SSCI 등재 여부	AHCI 등재 여부	JIF Percentile	High Rank %	Category
O	-	-	25.083	98.37	ENTEROLOGY & HEPA
O	-	-	17.425	94.02	ENTEROLOGY & HEPA
O	-	-	14.808	98.21	E RESEARCH & EXPER

Scopus				적합도	
Scopus 등재여부	CiteScore	Percentile	Category	추천 도구	Match Score
O	33.6	97	Hepatology	Ⓢ	5 / 5
O	22.4	94	Hepatology	Ⓢ	3 / 3
O	17.7	98	Medicine (all)	Ⓢ	0.20 / 1

투고 학술지 추천 - 상세 리스트

FASEB JOURNAL					
기본 정보	Volume	6892-6938			
	Publisher	BMC			
	Submit Tool (Match Score)	Clarivate AnalyticS Manuscript Matcher (0.32 / 1) WileyJrnl Finder (1 / 3)			
등재 정보	인용자료 (2020)				
	구분	보	Total Cite	Cite Score	Citation Quintile
	인용	5,192	34,292	SCOPUS 6.1	19,731
Impact Factor (영향력) 					

카테고리별 영향 정보				
구분	카테고리명	영향/서열수	상위%	연도
JCR	(SCIE) BIOLOGY	14 / 33	15.05%	2020
	(SCIE)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84 / 235	28.47%	
	(SCIE) CELL BIOLOGY	77 / 195	39.49%	
SCOPUS	Biotechnology	73 / 282	25.89%	2020
	Biochemistry	122 / 415	29.40%	
	Genetics	98 / 325	30.15%	
	Molecular Biology	144 / 382	37.70%	

PNU Scholar에서 등재정보 상세 보기

Acceptance Rate	Time to 1st Decision	Time to Publication
-	19.4 days	-

Guide for Authors
 Submission & Publication

추천 학술지 요약 보고서

2.부실(약탈적) 학술지 점검 서비스

연구자가 투고하려는 학술지 또는 출판사의 상세 정보를 조사해서 제공하고, 대상 학술지가 부실(악발적) 학술지 혹은 출판사인지는 아닌지 여부를 점검해주는 서비스이다.

부실(악탈적) 학술지 피해 예방을 위하여 부실(악탈적) 학술지의 특징, 광고 메일 사례, 피해 사례, 예방 방법,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간접적으로도, 도서관은 연구자 보급자를 책임진다. 오랫동안 학회지의 출판사(MDPI)는 학계에서 약탈과 출판사 수익가 논쟁이 높은 전통 출판사였다. 특고 시 주위가 필요하지 않다.												
결정 결과, SAFER에서는 ‘논점’으로,												
논문명	학인서 : 3000 도서 SCOPUS ERIH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Molecular Diversity Preservation International, (P)1661-6596; (E)1422-0067												
Bear's Line에서는 주의 사항'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Excluded – decide after reading												
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 (MDPI) - I decided not to include MDPI on the list itself. However, I would urge anyone that wants to publish with this publisher to thoroughly read this wiki article detailing their possible ethical/publishing problems, and a recent article discussing their growth.												
저작 사례 내림 및 표기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요약 정보	ISSN P(1661-6596) E(1422-0067)											
	Publisher 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 (MDPI)											
	출판 범위 SICE (P 8,24) SCOPUS, Clarivate ISI											
	편집 총괄 SAFER 편집총괄팀/제비꽃연구소 [한영희] Bear's Lin [최시연, 김윤미] [최 수현, 최수민]											
통계 정보	연구용량 (DOI)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Cite Total Cite</th><th>구분</th><th>Ether Source</th><th>Citation Count</th></tr></thead><tbody><tr><td>JCR</td><td>5,524</td><td>139,475</td><td>SCOPUS</td><td>6</td><td>139,244</td></tr></tbody></table>	구분	Cite Total Cite	구분	Ether Source	Citation Count	JCR	5,524	139,475	SCOPUS	6	139,244
구분	Cite Total Cite	구분	Ether Source	Citation Count								
JCR	5,524	139,475	SCOPUS	6	139,244							
	PKA Scholarly에 등록됨 상태 확인											
경로 결과					SAFER 안전확보인증시스템(SAFER)(Biomolecules.com) [안전하게 읽을] 안전 확보기록 제공, 학술 기록의 복제, 비합법적인 사용 금지 경고							
					[내려받기] ① 위키 콘텐츠/콘텐츠관리시스템(CMS)에 저장된 파일 보기 ② SAFER에는 최신 학술지 내용을 위해 페르소날을 초대할 때 사용할 만한 질문들 ③ 논문 제목, 주제어, 키워드 검색을 통해 ④ 내용 - 페르소나별 글과 워크 시트 공유(유망한 학자) ⑤ 논문 - 부속으로 여러 학자가 문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 ⑥ 저자에게 페르소날, 댓글, 글, 부속, 자료집을 생성할 권한을 부여 (일부 학자는 무료 - 리뷰를 위한 모든 접근 가능), 한국연구재단 조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부속 작성으로 전환되는 방식							
					Bear's Lin (Biomolecules.com) [Jeffrey Beall] 부속 학술지 출판사의 리스트 [John Wiley & Sons] (전 4월 4주) [Wiley-Library] (전 4월 4주) MDPI는 2014년 가을 Bear's Lin과 포스트마켓이다. 2015년 10월 Bear's Lin에서 제비꽃 그룹(Bear's Lin)에 대해 학술지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https://www.mdpi.net/about-us/press-releases/2015/10/20/							
체크리스트					ThickCheckSystem (http://thickchecksystem.com/) 문장이 지어진 출판물의 저작권을 추적하여 이 시스템은 페르소날로							
					ThickCheckSystem (http://thickchecksystem.com/) 언급될 때는 제비꽃 기계를 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가져다주는 계층							

부실(일반적) 학술지 점검 가이드라인 사례

3. 연구윤리 안내 서비스

연구윤리 관련 최신 이슈와 법규, 개정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연구부정행위(자기표절 등)에 대한 사례 기반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의 주선 내용은 [본인이 발표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 일부로 각주달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로 확인했습니다.

***답변:**

1. 대체로 이공계의 경우 이러한 학위논문 작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계마다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졸업학사 관련 부서(학과/단과대/대학원)**에 확인하셔야합니다.
2. **학위논문 심사위원**들에게 학위 논문을 제 제출하였음과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3. **학술지 편집위원**들에게 해당 논문을 학위논문에 사용하였다는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학위논문에는 선행 논문이 사용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합니다. (예: 본 란에는 ~학술지 00년 00권 00페이지에 실린 본인의 논문임)
(*위 내용은 2021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첨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학계마다 허용범위가 달라 위와 같이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물어보실 수 있는 부분을 안내드렸습니다.

연구윤리 관련 답변 사례

4. 참고문헌 관리 서비스

참고문헌 표기법에 대한 인용정보(본문 내 인용, 참고문헌 등)와 자료유형별(단행본, 학술지 논문, 전자자료 등) 표기 방법,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참고문헌 표기 방식을 안내한다. 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참고문헌관리도구(EndNote, RefWorks, Mendeley)의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양성치세로, 부산대학교와 도산관 연구실보장되었습니다. 참고문헌 작성 지침 서비스에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문의 내용: 박사 학위 청구 논문 중 외국인 저자 reference를 통해: 1) 논문 내용에서 저자에 대한 reference에서 이름과 날짜 상에 콜마(, 어부: ed) 지속가능한 기반을 주장하였고(Rivera-Camino, 2007)이월테 콜마에 콜마가 들어가는지 어부가 공급됩니다. -> 저자 경우 어부 논문은(Rivera-Camino 2007이라고 하고 어떤 논문은 (River-Camino, 2007이라고 합니다)결정해서 학사학위 논문에서의 정확한 표기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광학치에서 주로 사용되는 APA 스타일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위해 보시는 것처럼 위와 같은 경우 콜마를 사용하시 본문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APA Style (6th ed.)	인용유형	본문에서 첫 인용		주요문에서 두번째 인용	
	1회 저자 인용	Walker (2007)	Walker (2007)	(Walker, 2007)	(Walker, 2007)
	2회 저자 인용	Walker and Allen (2004)	Walker and Allen (2004)	(Walker & Allen, 2004)	(Walker & Allen, 2004)

연구지원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는 현재까지 대학원생이 5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교수 15%, 대학원수료후연구생 8%, 강사 5%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용하는 서비스는 투고 학술지 추천 서비스가 5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참고문헌 관리(21.3%), 연구윤리(8.2%), 부실학술지 점검(1.6%)순서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이용자들의 연구지원 신청 및 이용 사례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한층 더 심도 있고 다채로운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여, 연구중심 대학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연구지원서비스 관련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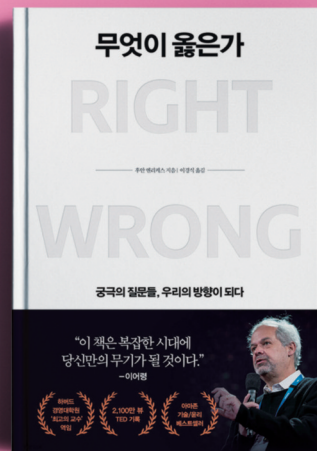
도서관 연구정보지원팀 : 051-510-1305(sean0910@pusan.ac.kr)

‘책 읽는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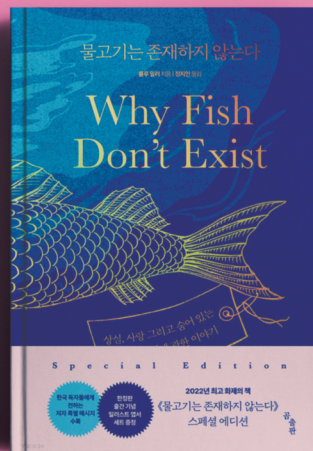
2022학년도

‘부산대 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권장하는 ‘책 읽는 대학’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2011년부터 매년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대 도서관 사서가 직접 고른 올해의 책 6권 중에서 1권을 골라 독서를 한 후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부산대 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70여명이 독후감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우수 독후감 11편이 선정되었다. 2022년 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 6권과 최우수 독후감을 소개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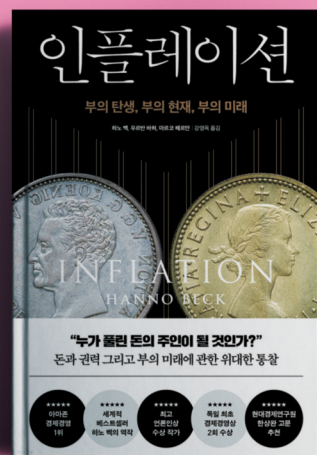
[인문학]
무엇이 옳은가
후안 엔리케스 / 세계사 / 2022



[과학]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롤루 밀러 / 곰솔판 / 2021



[심리학]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에리히 프롬 / 김영사 / 2022



[경제]
인플레이션
하노 벡 외 2 / 다산북스 / 2021



[문학]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 문학동네 / 2021



[문학]
천 개의 파랑
천선란 / 허블 / 2020

선정도서 | **작별하지 않는다**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청구기호] LDM 811.36 한11 ㅈ

인간다움과 작별하지 않는 법

최우수상 수상자 **이민경**(심리학과)

책 《작별하지 않는다》의 주인공은 ‘경하’인 듯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책의 초반부를 지나 중반부에 다다르면 ‘인선’이 주인공인가 싶다. 하지만 후반부에 다다를수록 ‘정심’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든다.¹⁾ 그러나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은 ‘사랑과 절멸 그리고 인간다움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책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사랑과 절멸,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 세 단어는 어떤 연결고리를 지닌 채 이야기를 끌어가는가. 사랑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지 않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사랑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그 차이로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부추기진 않는다. 반면 절멸의 정의는 명료하다. ‘아주 없어짐’. 그러나 실상은 이 명료한 뜻과는 달리 명료함에 그치지 않는다.

그 겨울 삼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이십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이 섬에 사는 삼십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려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 낙인찍힌 유족들도, 입을 떼는 순간 적의 편으로 낙인찍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침묵했으니까. (p.317)

이 둘은 차이점만 존재하는가? 완전히 양극단에 위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둘은 모두 ‘믿음’에서 나오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둘 다 그 믿음의 정도가 강하다는 면에서 같으나, 그 믿음의 방향은 다르다. 절멸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사랑은 타인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전자는 다른 이를 해치는 데 사용된다. 그 이유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 믿기 때문이다. 성찰 없는 신념의 고집은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의 전부가 된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념에 어긋나는 이들을 가만둘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자타를 신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내포한다. 존중이란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되 비판하는 일이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어렵지만 절멸은 비교적 쉽다. (이 ‘쉽다’는 말은 누군가의 목숨의 무게를 뜻하지 않음을 짚고 넘어간다.) 그렇기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기이고 절멸의 또 다른 이름은 비겁함이다.

역사 속의 독재자뿐만 아니라, 그의 하수인들은 비판 한 점 없는 공고한 이념 아래 공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집단화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앞세워 사람들을 죽인다. 그 방식은 다양하다. 물리적인 폭력, 노동 착취, 때로는 분위기. 동조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수많은 보통의 사람을 죽여온 역사를 우리는 배웠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인격을 제 손으로 버리고, 타인의 목숨을 주박과 위협하는 자들의 오만함과 믿음은 비겁함에 비례한다. 어쩌면 아집이고 모순이며 그 누구도 위하지 않는 자신의 이념을 차마 ‘깨우치지 못한’, 그래서 자신(과 이념)을 위협하는 자들과 논의하는 대신 그들을 영원히 지워버림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단지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행한다. 따라서 저 비겁함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회의주의와의 작별이자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고립과의 악수이다. 자신이 옳다는 그 믿음이 그릇된 것인지조차 모른 채로 그렇게 존재들의 절멸을 시도한다. 예컨대 공권력에 도전한 반역자 취급을 하는 식이거나 한국 사회에서 낙인을 찍는 ‘빨갱이’ 취급을 하는 식이다.

P읍에 있는 국민학교에 한 달간 수용돼 있다가, 지금 해수욕장이 된 백사장에서 12월에 모두 총살됐어. / 모두? / 군경 직계가족을 제외한 모두. / 젖먹이 아기도? / 절멸이 목적이었으니까. / 무엇을 절멸해? / 빨갱이들을. (p.220)

1) 2021,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코멘터리 북, 문학동네, 29쪽

다른 이를 믿고 연대하며 존중하는 사랑에서 나온 목소리의 합은 더 크게 더 멀리 뻗어나가 더 큰 힘을 지닌다.

절멸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절멸된다. 절멸은 아무 소리가 없는 ‘침묵’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 또한 그러하다. 생존을 위해 직업을 가질 수도,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도 없다. 그들이 겪었던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할 수 없다. 정심의 남편이 고문으로 인해 수전증을 가졌어도 일은 할 수 있었지만, 군사독재정권 하의 전과자인 그와 아무도 허물없이 지내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이러니한 일이다. 정작 인간답지 않은 일을 인간에게 저지른 자들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그 뜻이 지닌 완전무결함과는 다르게, 절멸은 소멸의 ‘시도’ 그 자체로 더 이상 완전하지 않게 된다. 침묵은 필연적으로 그 껍질을 깨고 나오고 만다. 제주 4·3 사건이 1987년 6월 민주화 행쟁의 열기 속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처럼, 그들은 왜 국가가 주도하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낸 것인가, 소리 없는 아우성 속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야 자신이 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인선은 경하와 함께 눈 속에서 마주 보며 ‘사랑은 무서운 고통’이라고 말한다. ‘살갓을 타고 스며드는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사랑’. 절멸을 찾아가는 과정은 ‘심장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이미 떨어져 나갔고 움푹 파인 그 자리를 적시고 나온 피는 더 이상 붉지도 뿜어 나오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전자가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기에 사랑과 절멸이 주는 고통의 간극을 크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무엇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가’를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전자를 택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탄압이 전제된 절멸 하에서 사랑을 행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들이 압도적인 소멸의 공포에도 사랑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다움’ 때문이다. 정심은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낙인에 몸을 움츠리기는커녕, 직접 절멸의 장소를 찾고 파헤친다. 가족의 시체 위에서 녹지 않는 눈을 뵈던 13살의 아이가 노인이 되어서까지, 오라버니가 살아있는지 찾는 과정에서 훗날의 남편을 찾아간다. 절멸의 문턱을 넘어온 또 다른 생존자를 만난 것이다. 정심의 남편은 15년간의 형무소 생활을 겪고 제주로 돌아와 백사장에서 떠내려갔을지 모르는 동생을 목격했을 여성의 집을 찾아간다. 그 여성은 딱 한 번 그에게 털어놓았던 그날의 일을 몇 년간의 망설임 끝에 훗날 인터뷰에서 말한다. 이 모든 이들의 기록을 파헤 쳐간 정심을 따라 인선은 세천리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저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 기원은 사랑이자 인간다움이다. 눈과 귀와 입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 결여된 인간 답지 못한 삶이나 마찬가지이니깐.

경 하난 그 사람이 입을 떼신디, 그날 모래밭에서 아이들을 봤느냐국. (...) 물론다국 내보내야 하는 것을 알명도 이상하게 대답을 하고 싶었저. 꼭 내가 그 사람을 기다렸던 것처럼. 누게가 이걸 물어봐주기만 기다리명 십오 년을 살 았던 것처럼. (p.230)

이 책에서 경하와 인선, 정심, 정심의 남편은 계속해서 환상인지 현실인지 모를 순간들 속에서 살아간다. 어느 것이 현실이고 환상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시점을 지나 기어코 살아낸다. 환상과 현실은 공존할 수 있는가.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건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고 상상할 때, 특히 사랑할 때 그렇지요.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동시에 살게 됩니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코멘터리 북, 21쪽) 이에 따르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상과 현실 그 어느 것과도 작별하지 않는 것, 즉 환상과 현실의 공존이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선은 경하가 자신의 꿈속에서 보았던 언덕 위의 우듬지들을 세우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묻는다. 이에 경하는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답한다. 어느 것이라고 주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두고 하는 단언일 테다. 경하는 아마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인선이 섬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인생의 모든 기점을 함께했음에도 인선을 잃을 것만 같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의 삶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작별을 논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작별은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고 버려야 하는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사랑 하는 누군가를 위해 작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환상과 현실과 작별하지 않는 것은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인선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심이 가족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경하가 꿈속의 삶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책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처럼.

앞에서 사랑과 절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다음 질문을 던질 차례이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인간다움과 작별하지 않아야 하는가? 사랑과 절멸,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평생토록 고뇌할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다움은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믿고 타인도 믿으며

함께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자세는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하나라도 없다면 자책이고 불신이며 자만이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용기가 된다. 앞에서 말했듯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용기이다. 자신이 겪지 않았다고 하여 지나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변화하지 않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더하여 타인의 목숨을 쉽게 앗아간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랑은 두려움에 맞서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며, 끝까지 마주하고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다. 혼자 실행하기 어려운 일은 사랑에서 행할 수 있다. 다른 이를 믿고 연대하며 존중하는 사랑에서 나온 목소리의 합은 더 크게 더 멀리 뻗어나가 더 큰 힘을 지닌다.

이토록 어려운 ‘인간다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의 정의보다 명확하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특정한 누군가가 다른 이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나 비도덕의 범위가 아닌 이상 타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절멸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기는 그릇된 판단의 결과이므로 인간 답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씨를 말려야 한다면 절멸을 행하는 자도, 죽여야 하는 대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다. 이에 어떻게 옳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

절멸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인간다움을 앗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가가 가해자인 폭력의 역사는 지워서는 안 되며 지울 수도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폭력이 21세기인 지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미처 배우지 않은, 혹은 외면하는 절멸만이 있을 뿐이다. 그릇된 믿음과 정치적인 목적 아래, 1980년의 광주 5·18 민주화 운동과 1975년부터 1987년까지의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절멸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진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력함을 겪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말이다. 현대에는 지금 당장의 죽음과 예고된 죽음이 혼합된 절멸의 사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사전 예방이 가능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탄식만 내놓는 ‘그들’처럼. 기본적인 인권인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보고도 장애인들의 시위로 인해 열차가 지연된다는 메시지만 반복하는 ‘그들’처럼. 출생율 하락과 노키즈존 찬성을 함께 외치는 ‘그들’처럼. 자신이 여성 혐오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죽였지만 낯부끄러운 핑계를 대며 여성을 매일같이 살해하는 ‘그들’처럼. 피해자보다 ‘그들’의 편에 서서 관용을 베푸는 ‘그들’처럼.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방조하고 묵도하는 ‘그들’처럼.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멸은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복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다움을 포기한 자들의 삶이 지속된다 하여도, 그들의 삶이 더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워 보여도, 그들의 삶은 이미 죽음으로 가득하다. 죽음의 삶을 연명하는 이들로 인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성찰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멈출 수는 없다.

무섭지 않았어. 아니,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 (...) 심장이 쪼개질 것같이 격렬하고 기이한 기쁨 속에서 생각했어. 너와 하기로 한 일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겠다고. (p.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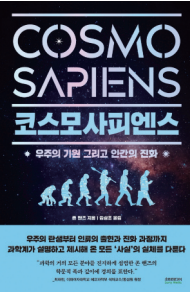
여전히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뇌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한다. 사랑이 개개인과 사회를 나눈 방향으로 이끌어 감을 알고 있지만, 사랑을 행하는 자들을 낚으려 애쓰는 자들이 많다. ‘오즘 세상이 살기 힘들다’는 말로 저 사실을 합리화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절멸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절멸의 역사를 기억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인간다움과 작별하지 않는 법이므로.





코스모사피엔스 :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진화

존 헨츠 지음 | 김상조 옮김 | 소미미디어 | 2022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523.1 H236c한



제목인 ‘코스모사피엔스’는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cosmos)와 슬기로움을 뜻하는 사피엔스(sapiens)의 합성어로, 우주를 가능하려는 의지를 지닌 지성체로서의 인간을 지칭한다. 인간이 어쩌서 특별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개념인데, 저자는 지금의 인류가 물리적 진화나 유전자상의 진화를 넘어 정신의 진화를 이룬 ‘반성적 의식을 소유’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칼 세이건이 『충백한 푸른 점』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에 대한 지적 열망과 인류 근원에 대한 탐구는 인류를 겸손하게 만들고 선하게 한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대한 사색 : 무한한 우주 속 인간의 위치

앨런 라이트먼 지음 | 송근아 옮김 | 아이콤파 | 2022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523.1 L724p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이자 ‘과학 저술계의 계관 시인’이라 불리는 이가 있다. 바로 하버드 천체 물리학자, 교수, 인문학자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력의 과학자 겸 인문학자 앨런 라이트먼이다. 작게 쪼개고 쪼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향하는 무한의 상태와 무한히 팽창하는 우주라는 세계. 그리고 이 양 심연의 끝단 사이에 불안하게 서서 전체 세계를 관찰하고 기록하고자 하는 인류.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는 어디이며, 생명, 마음, 자아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한 과학자의 최신 현대 과학 이론에 바탕한 깊이 있는 생각 여행이 시작된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화성 탐사선 큐리어시티호의 시대가 가고 제임스 웹과 퍼서비어런스호의 시대가 왔다. 이로써 우리 지구인들은 이들을 통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와 화성의 바람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여기 ISSUE에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로 바라본 우주와 우주의 일부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까지 우주와 관련된 책을 소개한다. 유한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류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생각하며 삶의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도 무한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다세계 : 양자역학은 왜 평행우주에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고 말할까

손 캐럴 지음 | 김영태 옮김 | 프시케의숲 | 2021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530.12 C319s한



양자역학을 다룬 정통 과학서로는 이례적으로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논픽션 종합’ 15위, 아마존 ‘과학’ 1위에 랭크되는 등 현재까지도 과학 독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 손 캐럴은 특히 ‘다세계 이론’을 통해 양자역학에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접근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유일하지 않으며, 매순간 서로 다른 세계들이 복제되어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 이른바 평행우주는 다세계 양자역학에 의해 단단하게 뒷받침된다. 이 책은 그간 주류 양자역학이 자의적으로 재단해버린 지점들을 정교하게 타격하며, 다세계 이론을 통해 양자역학의 전통적인 난제들을 기쁘히 뛰어넘는다.

우주를 만지다 : 삶이 물리학을 만나는 순간들

권재술 지음 | 특별한서재 | 2020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530 권72ㅇ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Proxima Centauri)는 약 4광년 떨어져 있다. 1광년이란 빛이 1년 동안 가야 하는 거리다.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이나 되는 거리를 갈 수 있고, 1억 5,0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까지도 8분이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빛으로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년을 가야 한다니. 얼마나 멀리 있는가? 이 책은 지구의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작은 원자 단계의 미시세계부터 감히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우주 너머의 거시세계까지,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세상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과학 에세이다.

창문을 열면, 우주 : 일상에 활기를 더하는 하루 한 편 우주탐사

문경수 지음 | 시공사 | 2021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523.1 문14ㄸ



서호주, 몽골, 미국의 뜨거운 사막, 흑한의 추위를 머금은 알래스카, 산소마저 희박한 하와이 마우나 케아 등 지구에서도 착박하기로 유명한 곳을 살살이 다니던 과학탐험가 문경수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우주다. 아주 오래전 맨눈으로 밤하늘을 보던 때에서 출발해서 인류의 첫 우주 진출, 달 착륙의 위대한 순간을 살펴본다. 그리고 화성 이주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현 상황은 물론,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의 우주 경쟁까지 흐름을 통해 ‘뉴스 페이스 시대’의 동향을 파악한다. 탐험가가 추천하는 지구의 별 보기 좋은 장소에서 달의 뒷면까지, 탐사 로버의 눈으로 본 화성의 분화구부터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를 이루는 얼음까지 인간의 호기심이 가닿은 무한한 공간을 돌아본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인류의 화려한 우주 이벤트를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주를 꿈꾼 여성들 : ‘그들’만의 우주에 도전한 13명의 비행사

타냐 리 스톤 지음 | 김충선 옮김 | 돌베개 | 2021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629.4 S881a한



우주 비행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 우수한 비행 실력과 강인한 체력, 뛰어난 판단력과 스트레스 적응력,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 그런데 나사가 막 창립되었을 때에는 불문의 규칙이 하나 더 있었다. 백인 남성일 것. 당시 최정에 남성 조종사들보다 더 우주 비행에 적합한 능력과 정부의 판단에 도전할 만한 용기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편견과 질투, 그리고 부통령이 휘갈긴 메모 때문에 우주로 날아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훗날 다른 여성들이 제트기를 조종하고 우주 사령관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타냐 리 스톤의 [우주를 꿈꾼 여성들]은 빠른 전개와 생생한 서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만평과 사진 등 풍부한 도판을 통해 우주 경쟁이 막 시작된 1960년대 초 미국으로 독자를 이끈다.

코스믹 커넥션 : 우주에서 본 우리

칼 세이건 지음 | 김지선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18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523.1 S129c한C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도 달, 소행성, 화성 등을 탐사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의 침체 상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우주 탐사 및 개발의 최대 관심사는 화성이다. 팰컨 헤비 발사는 2024년 유인 화성 탐사선을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며, 인사이트를 비롯한 화성 탐사 착륙선들은 화성 생명의 확정적 증거를 탐색할 것이다. 화성 탐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타잔을 탄생시킨 소설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의 『화성의 공주』 같은 화성을 무대로 한 SF 소설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퍼시벌 로웰의 ‘화성 운하 가설’이 대서특필되던 1910년대 이후 100년 만에 ‘화성 붐’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공상 과학’이 아닌 과학의 형태로 말이다. 1973년에 처음 출간된 이 책은 출간 첫해 50만 부 팔리며 칼 세이건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자리매김한 그의 첫 대중 과학서이다

만들어진 우주 : 우주에 대한 음모론들

매트 브라운 지음 | 김도형 옮김 | 지브레인 | 2018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 단행본 | SDM 523.1 B879e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달에 관한 음모론들, 그리고 화성의 숨겨진 문명에 대한 이야기들, 바다를 품은 위성들과 블랙홀의 실체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물질까지 당신이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지식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아니면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의 우주에 대한 묘사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우주가 춥고, 어둡고, 조용하고, 공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 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갖는 우주에 대한 대부분의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짚고 넘어가면, 올바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에는 즐거움도 따를 것이다.

#발견 #이곳

부산 지역출판사 둘러보기

부산에 터를 잡고 활동하고 있는 출판사들이 힘을 합쳐 부산을 알릴 수 있는 지역출판사의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며, 부산의 다양한 이야기와 문화를 활자로 세상에 공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그중 호밀밭 출판사와 산지니 출판사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세상 모든 것에 감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간” 호밀밭 출판사



호밀밭 출판사는 서울에서 음악 활동을 하던 장현정 대표가 우연한 계기로 사회학 공부를 시작하여 박사 과정 마지막 학기에 1인 출판사를 만든 것이 출판사의 시작으로 J.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출판사 이름을 가져왔다. 호밀은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출판문화가 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판 경력없이 시작하게 된 호밀밭은 장현정 대표가 20대 초반에 경험한 인디문화의 경험, 문화기획, 사회학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기존 출판의 고정관념을 벗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호밀밭은 유연하고, 좀 더 창의적일 수 있으며, 사회와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다.

호밀밭의 책들

호밀밭의 1호 출판도서

호밀밭의 1호 출판도서는 2009년에 출간된 **소년의 철학**(장현정 지)이다. 호밀밭 장현정 대표가 집필한 책으로 책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다보니 서툰데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출판사를 만들고 처음으로 ‘호밀밭’ 이름을 달고 세상 밖에 나오는 거라 무척 설렜던 기억을 가진 호밀밭의 1호 도서.



세상의 모든 청년 / 쓰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청년예술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



바다의 문장들 / 장현정
2022년 부산 출판사 일곱 곳이 모여 부산을 주제로 ‘비치리딩 시리즈’ 책을 8권 발간하였다. 시리즈 중 바다를 닮은 52개의 문장과 단상을 풀어낸 가볍게 읽기 좋은 책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 하태준
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실습생을 거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저자의 이야기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호밀밭 출판사가 전하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한마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든, 책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책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고,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손쉽게 빌리거나 구매하여 볼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책의 힘을 믿고 있고 좋은 책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든, 책을 통해 자기 삶의 크고 작은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문화의 지역화와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산지니 출판사



산지니라는 이름은 우리말로 산속에서 자라 오래 묵은 매를 뜻하는 말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버티는 우리나라 전통 매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척박한 지역출판 환경 속에서 매처럼 오래 살 아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산지니 출판사가 탄생했다. 산지니 출판사 강수걸 대표는 문화의 지역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심화에 도움이 되는 출판사를 지향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고자 출판사를 차리게 되었다.

산지니의 책들

산지니의 1호 출판도서

2005년에 출간된 **반송사람들**(고창권 지)이다.이 책은 저자 고창권님이 반송지역주민들과 지역활동을 하면서 살기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내용을 집필한 책으로 저자의 사연을 접한 산지니 출판사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탄생한 책이다. ‘반송사람들’이 출간된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출간기념 마을잔치가 열리기도 하였다.



나는 나 / 가네코 후미코
영화 ‘박열’에 등장한 가네코 후미코에 대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박열의 아내로 생각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자기자신으로 살고자 했고, 그 산업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다. 이런 그녀의 삶의 방식에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배울 수 있는 책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난 / 유지향
이십대의 마지막에서 저자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에세이. 하고싶은 일과 현실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요즘, 숭해설가로 활동 중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싶은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책



사다보면 끝이 있겠지요 / 김두리, 최규화
한국 전쟁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나는 김두리 할머니의 구술생애사. 노인 한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보통 할머니의 이야기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앞으로의 산지니

산지니 출판사는 좋은 책을 지속적으로 출판하여 그 책들이 많은 독자에게 가닿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해 저작권 수출에 힘쓰고, 해외 도서관에 참가하여 한국의 책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산지니는 2020년부터 지역 출판사 최초로 오디오 북을 직접제작, 유통하고 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그 속에서 놓치기 쉬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지니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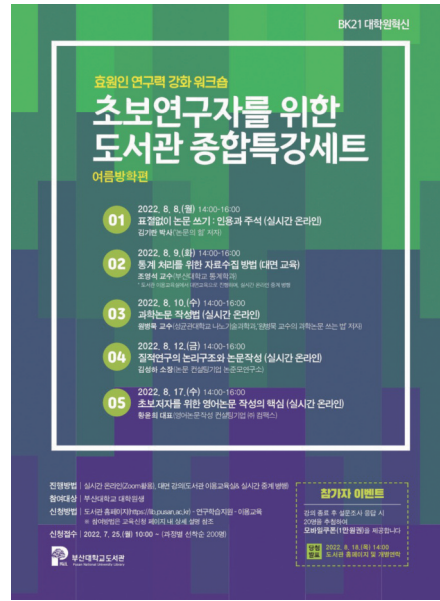


FOCUS 시선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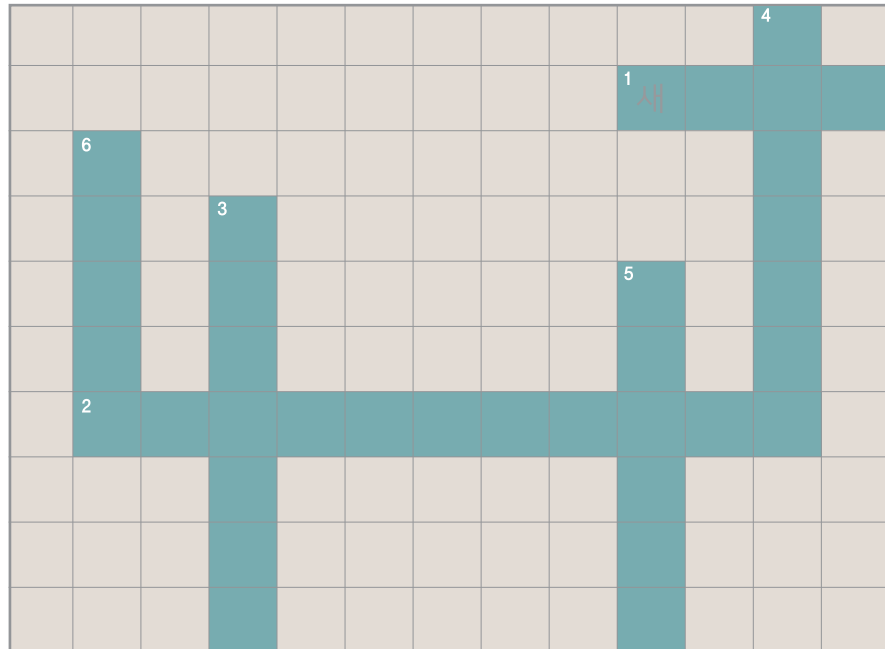
효원인 연구력 강화 워크숍 개최

도서관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습·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효원인 연구력 강화 워크숍>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효원인 연구력 강화 워크숍은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다.

강의는 총 5개의 주제로, 세부 내용은 <표절 없이 논문 쓰기: 인용과 주석(김기판 박사, '논문의 합자자')>, <통계 처리를 위한 자료수집 방법(조영석 교수,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과학논문 작성법(원병목 교수, '원병목 교수의 과학논문 쓰는 법' 저자)>, <질적 연구의 논리구조와 논문작성(김성하 소장, 논문 컨설팅 기업 논준모연구소)>, <초보저자를 위한 영어논문 작성의 핵심(황윤희 대표, 영어논문작성 컨설팅기업 ㈜컴팩스)>으로 구성하였다. 강의 방식은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던 예전과 달리 대면교육을 추가하여 실시간 온라인과 함께 혼합형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대학원생 대상으로 사전 의견 공모를 실시하여 결과를 주제 및 강사 선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그 결과 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주제와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강의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평점이 높았던 강의는 성균관대 원병목 교수의 "과학논문 작성법"이었으며, 논문 쓰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차 효원인 연구력 강화 워크숍은 2023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할 예정이다.



도서관 가로세로 낱말 맞추기



- 12월 5일 개관한 새벽별도서관 24시간 열람 공간의 이름은?
- 제4회 교수저작물 전시회 이름은?
- 9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의생명과학도서관의 전시 제목은?
- 2022학년도 '부산대 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올해의 책' 독후감 공모전 최우수 독후감의 도서관은?
- 2018년 매트 브라운이 저술한 우주에 대한 음론을 이야기한 책 제목은?
- 호밀밭 출판사의 제1호 출판도서관은?

경품안내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
음료상품권을 드립니다
(선착순 50명)

정답제출하기



공감 독서토론 : 버킷리스트로 만드는 나만의 스토리

부산대학교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공감 독서토론> 강연회가 10월 28일(금) 나노생명과학도서관 1층 스마트 러닝커먼스에서 진행되었다. hy(前한 국야쿠르트) 대표 교육강사 황인 대리가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tvN'유 퀴즈온더 블럭'의 다수의 프로그램 출연과 강연 경험이 있는 황인 강연자의 '버킷리스트로 만드는 나만의 스토리'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 되었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삶의 방향성과 구체성에 대해 학부생, 지역주민, 교직원이 다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도서구매지원 행사 개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교내 구성원의 학습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10월 27일(목) 도서구매지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교보문고의 지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부산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도서 정가의 30%를 할인받아 구입 할 수 있어,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참여하였다. 당일 행사는 온/오프라인 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약 446명 오프라인 1,121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와의 만남

유명작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는 2022년 저자와의 만남이 9월 28일(수), 11월 17일(목) 총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강연에서는 '천 개의 파랑' '아편 물질의 사랑' 등을 집필한 천선란 작가가, 2차 강연에서는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등을 집필한 한강 작가가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1차 강연은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2차 강연은 새벽별도서관 러닝커먼스에서 약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ZOOM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중계되었다. 작가의 작품세계와 창작배경 등에 관한 주제로 진행된 강연과 함께 현장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도서관, 책, 작가, 독자가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